

<서평>

태국 근대 관개체계의 정치경제

Brummelhuis, Han Ten. 2007. *King of the Waters: Homan van der Heide and the Origin of Modern Irrigation in Siam*,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Singapore and Silkworm Books, Chiang Mai, Thailand (ISBN-10:981-230-429-0; 978-981-230-429-2)

송 경 아**

1. 개관

쌀을 주식으로 하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치수(治水)는 전통적으로 국가의 임무로 간주되어 왔다. 왜냐하면 대규모 토목공사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추출하고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여타 사회세력에 비해 국가가 비교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수자원을 확보하여 쌀경작을 늘리는 것은 국가가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었다.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를 막고, 쌀농사에 종사하는 인구집단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은 여러 아시아 국가의 지배엘리트에게 통치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기초로 여겨져 왔다. 서구의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국가는 논농사(wet rice cultivation)를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위해 직접 관개시설을 건설 관리해왔고, 이것이 “아시아적 강성국가(Asiatic strong state)”의 출현을 이끈 매커니즘이다(Wittfogel 1957; Anderson 1975). 아시아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았던 대표적 사례가 바로 태국이다. 역사적으로 태국에서는 관개시설을 통해 용수효율을 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천수농업(rain-fed agriculture)이 주를 이루었다.

태국의 국가가 농업용수의 공급에 개입한 시점이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은 태국에서 논농사가 갖는 사회경제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태국은 인도와 더불어 전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이며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농업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1/4 이상이 쌀농사에 직접적으로 생계를 의탁하고 있다. 또한 태국은 남서부 몬순의 영향을 받는 우기에 강수량이 집중되어 홍수에 취약하다. 이러한 기후로 인해서 태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수로(canal)가 발달하였다. 물자의 운송과 인간의 이동이 주로 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상가옥이 지배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이처럼 수로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에서는 정작 논농사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수로는 없었다. 수로는 대부분 군수물자 이동이나 조세물품과 부역노동의 운송을 위해 건설된 것이었다. 19세기 중후반이 되어서야 쌀경작을 지원하기 위한 수로가 민간영역에서 건설 관리되기 시작하였으며 국가가 수자원 관리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반, 이른바 태국의 근대 개혁이 진행된 이후이다.

태국에서 물은 누구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되었으며, 국가는 수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변화를 보여왔을까? 태국의 수자원 관리 레짐(water governance regime)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해답은 흥미롭게도 인류학자에 의해 쓰여진 한 네델란드 공학자에 대한 이야기에서 찾아진다. *The King of the Waters*는 태국에 근대적 관개체계(modern irrigation system)를 건설하고자 했던 네델란드 수공학자 “호

만 반데 하이드(Homan van der Heide)”에 관한 것이다. 네델란드 동인도회사(Dutch East Indies) 소속 열대 수자원 전문가인 하이드는 1902년에 태국에 첫발을 내딛었다. 그는 이듬해 신설된 왕립관개국(Royal Irrigation Department)의 초대 책임자로 추대되었고 1909년까지 7년을 태국에 체류하였다. 저자 브루멜위스(Brummelhuis)는 광범위한 문헌 자료의 독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하이드가 당시 태국 왕실 및 주요 국가 기관, 태국 내 외국인 자문단 등과 맺는 다차원적 상호작용과 갈등을 재구성해냈다. 태국 전역에 근대적 관개시설을 건설하려던 하이드의 열의는 이방인이 이해하기 힘들었던 태국식 정치체제 및 관료조직과의 충돌 속에서 결국은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이 책은 얼핏 한 인물에 대한 전기(biography) 혹은 한 서양인의 태국 체류와 공직경험에 관련된 업무기(work biography)로 이해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책의 초점은 자연인 하이드가 아니라 그가 담당했던 업무, 즉 태국 근대 관개시설의 기원과 발전(the origin of modern irrigation in Thailand)에 맞춰져있다. 따라서 이 책은 관개시설이라는 단일 인프라스트럭처의 역사를 하이드의 공직취임 이전 시기부터 장기간에 걸쳐 추적함으로써 일국의 정치경제적 동학을 통시적으로 분석하는 정치경제서의 의미를 갖는다.

2. 농업-수로의 기능적 연계를 통해 본 태국의 정치경제

이제 이 책에서 저자 브루멜위스가 서술하고 있는 내용, 즉 태국에서 쌀경작과 수로의 기능적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피려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아유타야왕조 시기(Ayutthaya period)부터 근대개혁시기까지를 통시적으로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태국에서 쌀경작과 수로의 기능적 상관성은 당시의 사회구성, 경제적 조건 및 지배계급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 변화했다.

이는 크게 1)국가의 개입이 없던 시기, 2)농업용 수로건설이 민간영역에 의해 주도되던 시기, 그리고 3)농업과 수로의 연계성에 대한 자각과 국가 개입의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국가의 개입이 없던 시기: 노동통제 사회

먼저 태국에서 쌀경작과 수로의 기능적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던 시기를 살펴보자. 17세기 초 아유타야 왕국은 “수륙양용 도시국가(amphibious city-state)”라 불릴 정도로 물을 이용한 인프라스트럭처(aquatic infrastructure)가 많았지만, 당시의 수로(khlong, canal)는 오직 두 가지 기능을 담당했다. 하나는 군사물자의 신속한 수송을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세로 납부하는 공납물품과 부역노동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것이었다. 민간영역에서 개인이나 지역공동체에 의해 건설된 농업용 수로는 매우 제한적이고 소규모였다. 왜 정치엘리트는 인민의 후생이 쌀농사에 직접 의존하는 사회에서 농업용 수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데 힘을 기울이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저자는 당시 지배계급의 관점에서 무엇이 권력과 부를 창출하고 과시하는 희소자원이었는지에 주목한다. 희소자원의 분배와 사용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지는 일국의 사회구성(social formation)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풍요의 땅 태국, 논에는 쌀이 물에는 물고기가 넘쳐나네 (*Prathet Thai udomsomboon nai nam mii pla nai na mii khaw*),” 태국의 자연적 풍요를 칭송하는 이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태국은 자연적으로 충분히 공급되는 수자원이 있었고, 쌀을 경작할 수 있는 풍요로운 토지와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배계급에게 상대적으로 희소한 자원은 노동력이었다. 노동력은 그 특성상 가분성이 제한되며 축적 혹은 저장이 어렵다. 이와 같은 노동의 자연적 특

성과 그 상대적 희소성은 태국 사회에 독특한 형태의 노동통제원리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바로 잉여노동력의 대인적 복종 혹은 직접적 전유를 제도화한 “나이-프라이 체제(*nai-phrai system*)”이다. “나이(*nai, master*)”는 잉여노동 수취자를, “프라이(*phrai, commoner*)”는 잉여노동 공급자를 일컫는다. 필요한 노동을 직접 동원하고 소비하는 형태의 사회경제구조에서 프라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장래에 나이의 경제적 부가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를 넘어, 현재 그 소유자의 정치적 지위가 높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정치권력의 정점에 국왕이 있었고, 국왕에게 바치는 조세가 지대(*rent*)보다는 강제노역(*corvee*)의 형태로 납부되어야만 했다는 사실은 당시 태국이 “노동통제적 사회구성(*social formation based on labor control*)”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대다수 인구에게 가장 큰 부담인 세금은 바로 강제노역이었고 프라이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싼 엘리트 간 경쟁도 반복되었다.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는 국왕의 소유였고 프라이를 동원할 수 있는 최고 강제력도 국왕에게 있었다. 상대적으로 풍부했던 토지에 대한 권리는 사실상 토지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에 해당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국왕의 토지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이 약화되기 시작하는 아유타야 후반기까지 토지임대나 세습과 같은 구체적인 토지제도가 개발될 여지가 없었다. 이처럼 토지의 사적소유제가 정립되지 않았고 1인당 토지사용 규모 역시 크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를 사용하는 다양한 개인들이 협력하여 관개시설을 건설할 유인이 현저히 낮았던 것이다. 한편, 당시 국왕에게 부여된 통치의 일차적 과업은 저자가 밝힌 바와 같이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는 것”(p. 53)이었다. 이는 국왕이 적극적 개입을 통해 목적의식적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덕(*virtue*)을 쌓음으로써 우주론적 질서, 균형, 힌두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배적 종교규범의 반영이었다. 따라서 당시 태국

왕실에게 있어 “복지정치(politics of well-being)”란 인민의 후생을 직접적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사원을 건립하고 수도를 신의 영역으로 격상시키는 국왕의 공덕에 의해 정의되었다.

2) 민간주도적 농업용수로의 건설: 토지통제적 사회로의 이행

태국에서 농업과 수로의 기능적 상관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이다. 역사적으로 태국인들은 쌀과 함께 살아왔지만 국가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태국이 쌀에 의존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후반부터이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구(舊)시암왕국이 근대국가로 전환된 시기를 영국과 “보우링 조약(Bowring Treaty)”을 맺은 1855년으로 본다. 이후 태국은 국제무역체계에 편입하며 국제적인 쌀공급원으로 자리잡는다. 물론 보우링 조약 이전에도 중국, 유럽,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이 존재했다. 그러나 왕실이 지니던 무역독점권을 없애고 국내경제를 세계시장에 노출시킨 것은 조약 체결 이후부터이다. 태국이 국제적인 쌀공급원으로 특화된 것은 한편으로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농업구조개편에 따른 결과이다. 아시아의 다른 농업국가들의 경우 대부분의 농민이 플랜테이션 농업에 임금노동자로 고용되는 바람에 쌀농사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감소했다. 이에 태국은 쌀을 주요 수출품목으로 하는 국가로 변모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쌀은 국내수요를 위한 생필품의 성격을 넘어 이윤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전환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쌀농사가 “생계(subsistence)”에서 “이윤(profit)”의 영역으로 전환되면서 구체제의 사회경제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과거에 강제노역을 제공하던 이들이 자유농민(*free farmer*)이 되고, 이들의 경제적 동기에 의해 쌀잉여분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한편 도정과 미곡상을 장악했던 중국계는 태국 농민과 해외시장을

연결하는 중개인으로 자리하면서 서구와의 통상조약이 가져오는 이익을 재빠르게 취하기 시작한다(Akira 1996: 46-51). 세계시장을 겨냥한 상업적 쌀농사에 수반되어 나타난 가장 근본적 변화는 토지가 희소한 자원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전의 잉여토지-희소노동 관계가 낳았던 노동통제적 사회가 이제 토지통제적 사회로 변하게 된다. 토지의 희소성이 증대하자 토지소유권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국왕이 모든 토지의 소유자이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일종의 특권으로 부여하던 과거의 관습에서 탈피하여, 1861년 토지의 사적소유권이 최초로 법제화되었다. 토지사유를 제도화하자 토지의 임차, 등기, 저당, 용자와 관련된 여러 토지제도들이 함께 발전했다. 1901년 토지법(*kotmai thidin*, Land Law) 제정에 따라 모든 전통적 토지제도가 폐지되었고 사유재산권이 급격하게 도입되었다. 이제 태국에서는 한 인간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그가 보유한 프라이드의 수가 아니라, 소유토지의 면적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국가관료제의 행정역량이 집중되는 영역도 달라졌다. 과거의 관료들이 강제노역에 필요한 노동통제에 집중하였다면 점차 토지측량, 토지경계설정 및 토지등록에 국가행정력이 집중되었다 (Wyatt 2003: 192-194).

흥미로운 사실은 쌀 수출이 국가경제의 중추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쌀농사를 지원하는 농업용수로 건설을 직접 주도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상업적 쌀농사의 발전에 따라 조세수입이 늘어났고, 이에 국가는 주요 세원인 쌀농사를 장려할 필요성을 자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사회 내에 쌀농사로 부를 축적하려는 욕구가 팽배하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 태국의 국가는 사회의 이러한 욕구를 더욱 자극하고 실현시키는 전략으로 국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이는 토지와 수로를 연동시키는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였다. 첫째, 수로를 자비로 건설하면 그 수로의 양쪽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이는 개인이 수로사업에 직접 뛰어들도록 유인하는 토지취득제도였다. 둘째, 국가는 수로운영권을 개인에게 보장해주고 수로이용비로부터 얻는 이익에 세금을 부과했으며 토지세(*kha na*, land tax)를 완화해주는 정책을 통해 미개척지 개간을 장려하였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가는 수로건설에 투입되는 재정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민간의 쌀경작을 장려하고 수로운영으로부터 세입까지 취할 수 있었다. 이제 전근대 시암왕국의 군사용, 조세수납용 수로의 성격과는 완전히 다른 오직 쌀농사를 위한 농업용 수로가 민간영역에 의해 건설되기 시작했다. 요약하자면, 19세기 중후반 출현한 태국의 농업용 수로는 세계시장의 쌀수요에 대응하여 이윤을 증대시키려는 개인의 강력한 토지사유화 동기가 만들어 낸 부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3) 농업과 수로의 연계성에 대한 자각과 국가 개입의 시기

농업용 수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나타나는 시기는 앞서 논의한 두 번째 시기, 즉 농업용 수로가 민간영역에서 건설되는 시기와 많은 부분 중첩된다. 즉 농업용 수로가 민간영역에서 건설되면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시작되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토지와 수로의 연동제도, 즉 토지획득 수단으로서 수로를 건설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는 시장의 이익을 담보하고, 국가는 이를 통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민간의 수로건설허가(*concessions policy for canal digging*)는 주로 고위 관료,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중국계 상업자본가에게 집중되었다. 상당량의 수로에 사적소유권이 설정되고 사적통제가 이루어지면서 짜오프라야 델타지역은 귀족관리들 및 이들과 결탁한 중국계 상업자본가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토지사유화 과정이 정점에 이르는 지점에 “*Borisat*,

the Company”으로 약칭되던 “*Borisat khut khlong lae khu na sayam, Siam Land, Canals, and Irrigation Company*”의 태국 량식(Ransit)지역에 대한 토지 투기가 발생한다. 운하와 갑문을 건설하던 이 사기업은 약 7년 동안 왕성한 활동을 통해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많은 갈등을 야기했다. 방콕의 후배지에서 민간기업의 권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가규제가 요구되었다.

쭈라롱건(Chulalongkorn, 1868-1910) 국왕과 대부분 그의 이복형제들로 구성된 태국 궁정관료들은 운하건설과 개간사업에 대한 민간의 주도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서양의 수자원 전문가가 태국에 초대된 것은 바로 이러한 왕실의 전환된 인식과 정책변화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하이드는 곧바로 태국의 중부 평원지대에 대한 답사를 시작한다. 농민과 지역관리들을 접촉하여 토지의 사용용도, 쌀경작량, 생태적 조건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광범위하게 입수한다. 그의 열정은 농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었고 지역농민들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하이드는 태국에 온지 6개월만인 1902년에 “차오프라야강 하구의 관개, 배수에 관한 보고서(General Report on Irrigation and Drainage in the Lower Menam Valley)”를 완성한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홍수피해가 잦은 태국 중부 저지대 평야 지역에 체계적인 관개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이는 태국에서 한 번도 체계적으로 고려된 적 없는 태국 중부 평원지역의 지속적 발전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하이드의 업무는 시작부터 지역관리부터 중앙관료조직까지 광범위한 방해와 비협조적 태도에 직면하게 된다. 그의 보고서는 관료조직의 불필요한 절차 속에 지연되었고, 당시 태국관료조직에서 여전히 강하게 존재했던 독특한 의례적 지위체계 속에서 상부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 책의 후반부는 오직 관개시설에 대한 전문성으로 무장한 이

서양 수공학자가 태국 관료문화 속에서 겪는 문화적 충돌과 좌절의 경험을 복원하는데 할애된다.

3. 태국 정치경제의 기초: 농업과 정치의 접합

미개간지 획득이라는 이익을 목표로 한 민간의 수로건설은 결과적으로 방콕의 지역적 팽창을 촉진시켰으며 태국 중부평원 대부분을 연결할 만큼 정비된 운하연결망이 갖추어진다. 하이드의 등장은 왕실이 농업과 수로의 기능적 연계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운하건설과 개간사업에 대한 민간의 주도권을 견제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그러나 태국 전역에 농업용수 공급과 홍수 예방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관개체제를 건설하려던 노력은 당시에는 현실화되지 못한다. 그 이유를 밝히는 데 있어 저자는 먼저 방콕 최초의 근대적 신도로인 “짜른크룽(*Charoen Krung, New Road*)”에 주목한다. 문호 개방 이후 수많은 서양인들이 태국에 유입되고 이들의 요구에 따라 짜오프라야강의 동쪽을 따라 방콕을 남북으로 잇는 도로가 1864년에 건설된다. 짜른크룽의 건설은 수로가 맡던 수송기능을 지상도로가 대체하는 시대적 변화를 상징한다. 쥘라롱건 국왕은 시암왕국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서구식 관습과 모델을 취하려했는데 왕실이 채용한 외국인 정부고문(*government adviser*)이 하이드를 포함하여 30명에 이른다는 사실만 봐도 방콕이 국제적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짐작케 한다. 전통적으로 태국의 수로가 담당하던 연계기능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오직 쌀경작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관개시설의 건설은 비경제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 저자는 급변하던 정치사회 지형에서 관개시설과 결합하는 대형 공공사업이 많았음을 지적하고 그 중 철도망의 구축

에 주목한다. 19세기 후반 태국사회의 변화는 두 차원에서 관찰되는데 하나는 상업적 쌀생산과 연관된 경제적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짜끄리개혁(Chakri Reformation) 이후 강화된 국가권력의 권위를 증명하고자 하는 정치적 동기이다. 쌀농사가 집중된 중앙평원으로 대규모의 농업노동력이 이동되어야했고, 포장된 쌀이 해외시장의 수요에 맞춰 신속하게 운송되어야했다. 태국 남부의 주석광산이 개발되고 북부 산악지역에 티크나무 벌채가 성행하는 것도 전국적 철도연계망의 구축을 압박하는 요인이었다. 다른 한편, 짜끄리개혁 이후 근대적 상비군과 관료조직이 정비됨에 따라 군대수송 및 전국적인 행정망의 구축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철도건설은 주요 과제로 부각된다. 또한 당시 프랑스의 시암왕국에 대한 개입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군조직의 정비와 행정개혁을 통한 효과적인 세수확보가 필수적이었다. 즉, 농업생산을 겨냥한 수로의 건설은 장기적인 농업발전의 조건일 수는 있으나 당시 태국의 상황과 왕실의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과업이었던 것이다.

이 책은 태국 관개체계의 기원과 발전과정에서 하이드가 태국에 체류하였던 1902년부터 1909년까지의 7년의 시기에 대한 밀도 있는 기술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의 태국인에게 영웅에 가까운 인물을 재조명하려 함이 아니다. 또한 특정한 사회과학이론을 적용하거나 이를 통해 태국 국가의 성격을 재이론화하기 위함도 아니다. 태국 왕립관개국(Royal Irrigation Department)의 초대 장관이 서양인이었다는 것과 그가 담당한 업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었다. 인류학자 브루멜위스는 이 과거의 시간을 복원해냈고, 이 집념의 작업은 현재의 태국과 관련된 여러 의문점을 풀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읽혀질 수 있는 저서로 완성되었다. 관개시설이라는 단일 인프라스트럭처에 주목하고, 이의 진화과정에 내포된 정치경제적 동학을 통시적으로 분석한 이 연구는 동남아시아 연구

에서 인프라스트럭 연구가 일국 혹은 지역의 정치경제적 동학을 밝히는 좋은 연구전략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하이드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태국 국가가 농업용 수로 건설에 무관심했다거나, 장기적 농업발전의 청사진이 없었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결론을 지으면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려한다. 오히려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태국의 지배엘리트가 서양의 전문적 기술을 수입하는데 가장 앞장섰다는 점이 부각되어야한다. 지난 70년간 태국 현대정치의 가장 중심 행위자였던 푸미폰 아둔야뎃(Bhumibol Adulyadej, 1946-2016) 국왕이 실행한 왕실주도사업 중의 40% 이상이 수자원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것은 태국식 맥락에서 정치와 농업이 어떻게 접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왕성한 후속연구들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참고문헌〉

- Akira, Suehiro. 1996. *Capital Accumulation in Thailand 1855-1985*.
Chiang Mai: Silworm Books.
- Anderson, Perry. 1975. *Lineages of the Absolutist State*. London: New
Left Books.
- Wittfogel, Karl A. 1957. *Oriental Despotism: A Comparative Study
of Total Pow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Wyatt, David. K. 2003. *Thailand: A Short History*. Second Ed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